覺, 잠 깬 이가 꿈 얘기하는 것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㉑ 연야달다 이야기

〈원문〉 부처님이 부루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듣지 못했느냐? 실라성(室羅城)에 살던 연야달다(演若達多)가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거울 속에 나타난 제 얼굴의 눈과 눈썹을 좋아하다가 홀연히 자신의 머리에는 얼굴과 눈이 안 보인다 하여 도깨비가 되었다고 화를 내며 까닭 없이 미쳐 달아났으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까닭 없이 미쳐 달아났겠느냐?

부루나가 말하였다.

"그 사람은 마음이 미쳤을 뿐 다른 까닭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묘각(妙覺)이 뚜렷이 밝아 본래 그대로 밝고 미묘하거늘 이미 망(妄)이라 일컬은들 무슨 원인이 있겠는가? 만약에 원인이 있다면 어찌 망(妄)이라 하겠는가? 스스로의 모든 망상이 굴러져 서로 원인이 되고, 미(迷)로부터 미(迷)를 쌓아 진겁(塵劫)을 지났으므로 비록 부처님이 펴 밝혀도 오히려 돌이키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미(迷)한 원인은 미(迷)를 인하여 저절로 있는 것이니, 미(迷)가 원인이 없음을 알면 망(妄)이 의지할 바가 없으리라. 오히려 생긴 바도 없거늘, 무엇을 멸하려 하겠는가? 보리를 얻은 자는 잠을 깬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아서 마음이 비록 정밀하게 밝지만 무슨 인연으로 꿈속의 물건을 취할 수 있겠느냐?"

〈강설〉이 이야기는 중생의 미혹(迷惑)이 까닭 없이 생기는 것이라는 비유로 설해진 이야기다.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광기(狂氣)가 발동하여 미쳐서 거리로 뛰쳐나갔다는 이야기에서 사람이 미친 증세가 어떤 원인을 가지고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동쪽을 서쪽으로 착각했다면 결국 생각을 잘못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기신론〉에서는 미(迷)를 불각(不覺)이라 한다.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지만 전(轉)하여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는 뜻도 된다.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해졌다는 말이다.

"여실히 진여법이 하나임을 모르기 때문에 불각심이 일어났다(不如實知眞如法一故 不覺心起)." 불각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기신론의 이 말은 진여를 모르는 상태의 마음이 되어버린 중생의 미(迷)를 두고 한 말이다. 왜 진여를 모르게 되었는가? 그냥 '홀연히'라는 것이다. 홀연히 진여가 흔들린 것이 불각의 시초라는 것이다. 마치 바다나 호수의 수면에 바람이 부딪쳐 파도가 일어난 상태와 같다는 것이다. 아뢰야식(阿賴耶識)을 각(覺)과 불각(不覺)이 화합된 식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진여의 본각(本覺)과 무명의 불각이 합쳐진 것으로, 진망화합식(眞妄和合識)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진(眞)과 망(妄)을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은 것이라 하여 아뢰야식을 설명할 때는 비일비이(非一非異)라는 말을 써왔다. 고요하던 물이 움직여 파도가 된 것은 진여가 아뢰야식이 된 것이다. 물이 파도이고 파도가 물이므로 물과 파도가 다른 것이 아니고, 움직이고 고요한 상태로 보면 동정이 다르므로 하나가 아니다. 진여가 아뢰야식으로 변하게 된 데에는 진여를 모르는 미(迷)가 홀연히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 이를 규봉 종밀(圭峰宗密 · 780~841)은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序)〉에서 염기(念起)라고 표현하였다. 이 염기(念起)가 바로 무명이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念起), 이것이 바로 '홀연히'이다. 연야달다가 미쳐 달아난 광기가 까닭 없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여 중생의 본각이 미(迷)해져서 자각이 되지 않는 것을 묘하게 비유하고 있다. 중생이 본래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각진심(本覺眞心)이라 한다. 이것이 바로 심진여(心眞如)다. 경험 이전의 선험적(先驗的)인 각(覺)인데 수행을 통하여 경험화(經驗化)시키는 것을 시각(始覺)이라 한다. 그러나 각(覺)은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시본불이(始本不二)라고 한다. 완전한 깨달음인 구경각(究竟覺)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을 부분적으로 경험해 가는 과정을 두고 범부각(凡夫覺), 상사각(相似覺), 수분각(隨分覺)이라는 명칭도 있다. 보리를 얻은 사람은 자면서 꿈을 꾸다 잠이 깨어 꿈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다는 비유도 자주 하는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살갗수행 호흡 자체가 '세수법'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㉑ 살갗호흡 통한 세수법

눈, 귀, 코, 입, 얼굴, 두정부 피질의 네 모서리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두부 체감각계가 교정된 것이다. 연수부 교정이 이루어졌으면 다음 단계 호흡으로 수련을 심화시킨다. 백회에서 끌어들인 나선의 느낌을 꼬리뼈 끝까지 이끌어간다. 천천히 호흡을 들이쉬면서 연수까지 내려왔던 나선의 느낌을 꼬리뼈 끝까지 끌고 간다. 경수부와 흉수부를 지날 때 느낌이 살아있는지 관찰하고 요수부와 천수부를 지날 때도 느낌의 상태를 관찰한다. 나선의 감각이 꼬리뼈 쪽으로 내려갈 때는 뻑뻑하게 억제된 느낌이 척수 전반에 걸쳐서 형성된다. 반복해서 수련하면 이 느낌이 더 커진다. 억제된 느낌이 명확해지면 날숨 수련을 한다. 날숨 수련은 네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첫 번째 단계는 경수부 날숨이다. 경수부의 목신경은 8개 분절로 이루어져 있다. 3번 분절부터 팔 신경과 연결된다. 8번 경수까지 숨을 들이쉬고 경수부를 억제시킨다. 그런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양 팔 쪽으로 호흡의 느낌을 유도한다. 목 어깨를 거쳐서 손가락 끝까지 느낌이 전달되면 제대로 된 것이다. 양쪽 팔로 내려가는 느낌이 균등하면 목신경과 팔 신경이 교정된 것이다. 처음에는 저르르 하는 느낌이 팔을 타고 내려간다. 그러다가 수련이 깊어지면 뻑뻑하고 뜨거운 느낌이 팔을 타고 내려가서 손바닥에 모여 있다. 이런 방법으로 신경을 씻어내는 것을 '세수(洗修)'라고 한다. 살갗수행의 호흡법은 그 자체가 '세수법'이다. 목신경과 팔신경을 세수할 때는 손가락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펴 주어야 한다. 경수부 세수가 끝났으면 흉수부를 씻어 준다. 호흡을 요수 2번까지 들이쉰다. 마찬가지로 나선 호흡이다. 흉수부는 12개의 가슴 신경과 2개의 요수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수 2번은 배꼽 반대쪽에 위치한 척추 부위이다. 명문혈이라 부른다. 날숨에 갈비뼈를 타고 호흡의 느낌을 배 쪽으로 끌고 온다. 뻑뻑한 느낌이 배 쪽을 감싸면 제대로 되는 것이다. 반복해서 수련하면 흉부와 배부가 두툼한 에너지로 감싸진다. 갑옷을 입은 것처럼 든든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흉수부 세수가 성취된 것이다. 흉수부 세수가 진행되면서는 다리 쪽으로도 자극이 내려간다. 이는 요수 1, 2번이 씻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음 단계는 요수부 세수이다. 요수부는 5개의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1, 2번은 흉수와 함께 연동된다. 5번 요수까지 나선 호흡을 들이쉰다. 신경이 억제되면 천천히 숨을 내쉰다. 이때 양쪽 요수를 통해 호흡의 느낌을 양쪽 발로 내려 보낸다. 호흡의 느낌이 고관절을 지나갈 때 두두둥 하는 진동이 생길 수 있다. 때로는 엄청난 냉기가 발 쪽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요수부 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황하지 말고 따뜻한 기운이 발 쪽을 감쌀 때까지 반복한다. 요수부가 세수되면 발바닥이 따뜻해지면서 용천혈 부위에 압력이 형성된다. 에너지가 발 쪽에 모이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다음은 천수부 세수이다.

천수부는 6개의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꼬리뼈 끝부분이 천수부 말단이다. 백회에서 들이쉰 나선 호흡을 꼬리뼈 끝까지 끌고 온다. 신경이 억제되면 숨을 내쉬면서 천수신경을 자극한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신경이 자극되는 부위를 느껴 본다. 꼬리뼈 끝이 시리고 아랫배 쪽에서 냉기가 느껴지고 싸늘한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머리 쪽으로 올라온다. 어떤 경우는 오한이 생겨서 부들부들 떨기도 한다. 그야말로 냉기의 폭탄을 맞은 듯 온몸이 아우성친다. 천수부에는 엄청난 냉기가 내장되어 있다. 부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된 사람은 이 증상을 더 심하게 겪는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㉑ 세상의 이론에 습관화되지 말라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세상에 펼쳐지는 현상들과 근원은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지만, 어둠과 밝음의 관계처럼 서로는 한 번도 같은 공간에서 마주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인간은 세상이라는 공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모아 새로운 원리를 만들고 나면, 어떤 큰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흥분하여 공표하는 것을 반복하지만, 그것은 진리의 일부분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근원을 더 혼란스럽게 한 것일 뿐이다. 세상은 이러한 발견하고 발전된 혼란을 더 좋아하여 동조하게 되고, 다시 그들이 파놓은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 자신이 발견해야 하는 새로운 것을 인위적으로 찾는다. 그 인위적인 발견이 인간에게 도움을 준다고 믿으며, 자신이 해놓은 그 일을 누군가가 다시 발전시켜 완벽한 이상적인 어떤 형태를 발견하고 만들기를 바란다.

왜 인간은 발견하고 발전한 것의 기록이 다음 세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마도 인간의 DNA 속에 수많은 삶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되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개미가 태어나서 각자의 위치에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다가 떠나듯이, 인간의 DNA도 생명체로서 살아온 포괄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역량을 도출하여 이상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직감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에서 나오는 정해진 무명의 결과일 뿐이란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 개미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일생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인간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불변의 사실을 완전히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은 모두 착각일 수밖에 없다.

"세간의 여러 언설이나 글은 모두 세간의 인연법을 모아 말한 것으로 교묘한 비유와 어구로 수식하여 어리석고 미혹한 범부들을 유인한다네. 하지만 이러한 말과 글은 일체법의 구경을 깨달아 스스로 통하는 진실한 경계에 들어서게 할 수 없네."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도 듣는 것을 포기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 우리는 다른 생명체보다도 바보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른 생명체들은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뿐이고,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주어진 임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으니 그저 그 인연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양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혹을 치우침 없이 바르게 볼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지만, 물질이 주는 안락과 물질의 축적이 주는 우월감의 유혹에 빠져 풍요를 즐기면서 환상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새로운 것을 발견하여 앞서가려는 마음을 가진다. 그러나 세상 어느 곳에도 새롭고 특별한 것은 없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모방되고, 허상밖에 없다. 완전한 새로운 것은 누구에게도 보인 적도 없고, 소유되었던 적도 없다. 오직 인간만이 창조라는 이름에 묶여 자신을 가두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고자 부단한 노력 아닌 노력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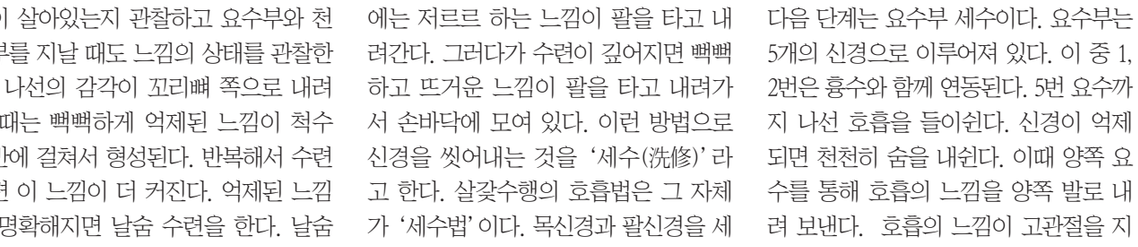
세상에 나타난 어떤 이론도 진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든 주체가 진리에 대한 앎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진리를 말하려 한다면 그는 자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부정을 해야 한다. 그 부정이 나쁜 의미에서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전과 지금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긍정을 할 수가 없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부정을 해야 하는 그 개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이 되지만, 그는 너무도 태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는 항상 옆에 있는 그 개체에 대해 더 이상 하여야 하는 말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언어가 생기지도 않은 것에 대한 사변적인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침묵 속에 놓일 것이며,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정보에 대한 아무런 견해를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그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지, 그를 편안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자신과 맞는 논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논리는 또 다른 번민을 만드는 줄 알고 세상의 논리에 자신을 묶지 않는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국내 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스틸 대웅전 스틸한옥 누각 산신각 박물관 공용화장실
안내소 전시장 문중제실 한옥인테리어 종각



국내 최초 법명사 스틸 종각

초파일 산신각 특별 할인 판매 가로 2500/세로 2200=1500만원

(석가래 부연 기와 내부상단 한옥문 바닥장판 전기 기본)

저렴한 금액 편리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함 간단한 조립구조

문의 010-5023-5050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